

# 종교와 미디어, 역사 속에서 만나다

피터 호스필드 Peter Horsfield

지난 8월,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ISMRC) 국제학술회의 서울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세계 관동역회 실행위원인 서울여대 박진규 교수의 도움으로 피터 호스필드(Peter Horsfield)를 신국원 편집위원(총신대 교수)이 만났다. 피터 호스필드(Peter Horsfield)는 호주 멜버른의 RMIT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로 주로 미디어의 종교성, 종교와 문화에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하였으며 저서로는 『From Jesus to the Internet』(2015), 『Emerging Research in Media, Religion and Culture』(2005), 『Belief in Media: Cultural Perspectives on Media and Christianity』(2004) 등이 있다. 인터뷰어인 신국원 편집위원은 총신대 신학과 철학 담당 교수로, 주요 저서인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은 신학, 철학, 문화 연구를 통해 대중문화에 접근하는 통합적이고도 해석학적인 안목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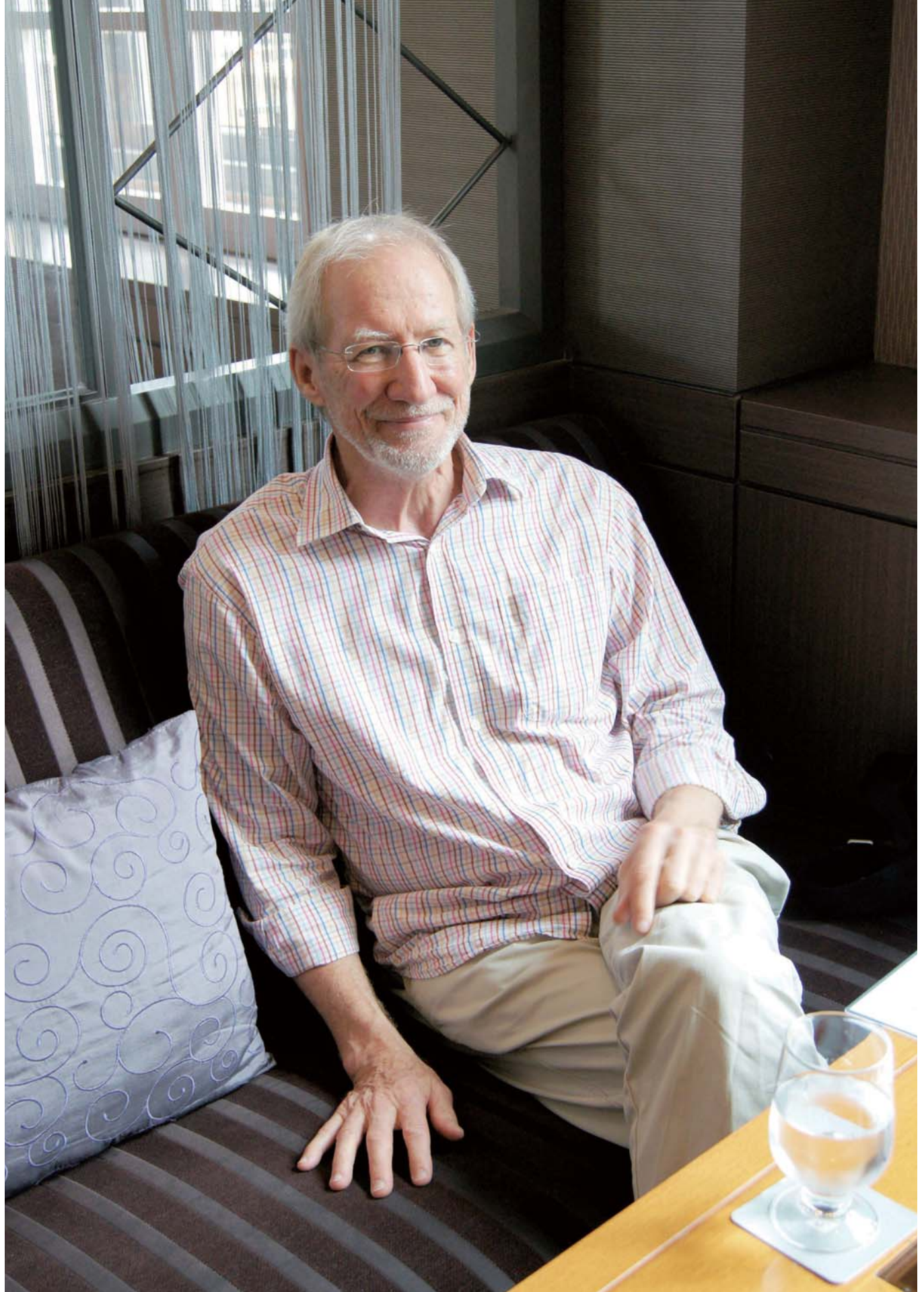
인터뷰어 및 감수 신국원(편집위원, 총신대 교수) 번역 및 정리 김빛고을 사진 신효영

**신국원 (이하 신)**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Peter Horsfield(이하 Peter)** 국제언론종교문화학회(ISMRC)는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4년 출범한 ISMRC는 미디어와 종교, 문화 사이의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제학회로 국내외 언론학자 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회에서는 논문발표 및 토론 등의 프로그램 외에 한국의 여러 종교단체 현장답사도 했지요. 이

번 학회에서는 제가 쓴 책 『From Jesus to the Internet』(2015)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덕분에 학문적 자극도 되고 토론거리도 풍성해서 더 흥미로웠습니다.

**신** 좋은 시간이었겠습니다. 발표하신 저서 『From Jesus to the Internet』(2015)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Peter** 기독교 역사와 신학은 기독교 발전과정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가 미디어를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데서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디어(media)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미디어는 특별한 문화 형태로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사회적 관계 등이 질서정연한 형태로 변모합니다. 최근 미디어 연구들은 이런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죠. 저는 신학과 교회사를 전공한 것을 토대로, 역사 속에서 미디어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 미디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만,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전제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 기독교와 미디어의 관계는 무엇인지, 미디어에 따라 기독교 문화와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여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등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독교와 미디어의 불가분한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신** 기독교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Peter** 저도 사실 이 분야를 공부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교가, 왜, 어떤 문화를 형성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미디어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연구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공생애 당시 유대교와 비유대교적 맥락의 전환된 미디어, 기독교 제국 속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와 동방정교회 등의 사례, 중세를 넘어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문화의 형성과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다뤘습니다. 한 시대의 발전은 다른 시대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회상과 시대에 영향을 미친 미디어들을 살펴본 후, 그것이 다음 시대에 끼친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신** 미디어를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Peter** 그렇습니다. 보통 핵심 미디어(key media)로 책, 라디오, TV, 전화기 등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매체들을 떠올리지만 저는 이 책에서 미디어를 매우 포괄적인 범주로 다루었습니다. 냄새, 건축양식, 얼굴 표정과 터치(touch)까지도 미디어로 보죠. 이런 것들도 매개(mediation)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책은 다양한 매체를 다룹니다. 종교적인 글, 서신, 장식, 조각상, 기호, 영화, 건축물, 자연 풍경도요. 제 연구는 기독교가 미디어, 의사소통체계에 어떻게 영향받았는지에 대해 접근하기에 이런 요소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수반합니다.

**신**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주장이 생각납니다.

**Peter**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특정 미디어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미디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투영된 현실이 어떻게 보이고 표상되는지 특징적인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 감각을 다루고 이를 통해 받아들인 현실에 영향을 주죠. 그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미디어입니다. 구술,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현 문화에 비취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야기로, 구술문화 속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쓰기, 즉 기술문화(writing culture)로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 전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변화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미디어에 따라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다고 보십니까?

**Peter**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 이야기는 바울의 해석을 통해 기술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관점이 아닌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은 기록하지 않는 한 사라지죠. 바울은 사라지는 말의 미디어가 아닌, 사라지지 않는 영구적 미디어인 글로 생각을 적었습니다. 당연히 글로 쓸 당시 문화적 상황도 미디어에 개입되지요. 문화적 미디어, 즉 당시의 비유대적 문화의 미디어도 개입합니다.

**신** 그렇겠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시민으로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통적 그리스인도 아니었죠.

**Peter** 게다가 당시 인구 중 50%의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화합의 공동체로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의 시대를 봅시다. 기원전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그가 책을 쓰는 이유를 서술하였지요. 당시 성경의 내용과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죠. '쓰는 이유'를 기술했다는 것은 반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클레멘트는 자신이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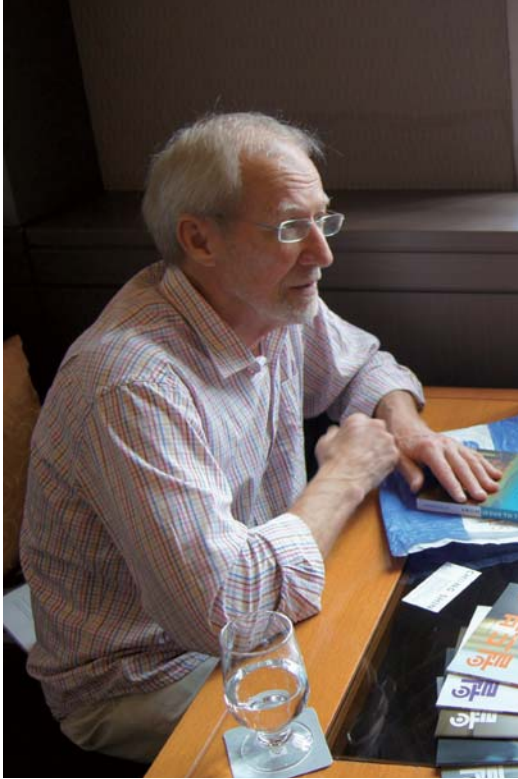
을 쓰는 이유를 기술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디어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클레멘트는 '쓰는 이유'에 정당성을 제공하였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일련의 아젠다(agenda)를 마주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 수용자는 이를 중심으로 군집합니다. 글은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미디어인 거죠. 당시 황제의 리더십이나 수직적 구조의 공동체를 지지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는 읽고 쓸 줄 아는 5%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계급과 정치적 문제들을 만들기도 했지요.

**신** 매우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Peter** 오늘날 이 시대는 리더십이 분산되고 참여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미디어는 고유의 특징으로 집권화하기도 하죠. 미디어로 재생산된 의미들은 수용자를 만나고 이것은 수직적 관계를 재편성, 형성하기도 합니다.

**신** 저 또한 미디어 연구에 관심이 큼니다. 미디어 연구에 관심을 갖기까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 접한 시민운동도 한몫을 했죠. 미디어 자체가 미디어 요소 및 대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나 환경적 요소는 더욱 그렇고요. 교수님은 신학, 기독교 역사 그리고 문화 연구를 공부하였습니다. 문화연구는 당신의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Peter** 문화연구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안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기독교를 특정 용례로 만들어진 체계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미디어를 사용하여 안과 밖을 볼 수 있게 하죠. 우리



시대마다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주류인 고전문화에서는 문자가,  
문자가 편만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는 예수님이 어떠한 미디어로 제자들을 이끌었는지, 3~4세기경에는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 역사 속에서 살펴봅시다.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에 미디어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Peter** 기술(writing culture)로 전파된 기독교는 콘스탄틴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대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5%에 대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의사소통구조가 형성되었죠. 콘스탄틴 황제는 이를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신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의 정치적 체제 아래 두려 하였고, 초창기 기독교는 그런 미디어 방식으로 형성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신**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Peter** 시대마다 큰 도전이었지요. 그림이 포함된 고전적인 문화에서는 문자가, 문자가 편만한 지금 이 시대에는 시각적 이미지의 아우라가 도전합니다. 우세한 것이 의미를 결정하지요. 문맹률이 높은 문화에서는 이미지가 문자보다 관심이 크고 소통되는 느낌을 줍니다. 문자 속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열린 구조의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해석합니다. 이 의미들이 일련의 논리 구조를 갖춰 수용자를 설득하여 대중을 이루고 권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는 지점에도 미디어가 있게 됩니다.

**신** 역사 속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도 그렇습니다. 종교와 미디어와의 연결지점에서 말이죠.

**Peter** 네, 매우 중요한 개혁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개혁이 전통적인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이 정신이 종교개혁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 인쇄 기술의 발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는 성경을 발행하고 종교적 서적을 출판하는 종교의 언어를 사용했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쓰인 자료를 찾고 인쇄는 산업을 일궈 냅니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라틴어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는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극소수만 읽을 수 있었죠. 루터는 이에 대해 자국어인 독일어로 쓰인 책,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출판업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책을 판매했고 루터의 글은 더욱 퍼졌습니다. '계속 재생산한다'는 미디어의 습성이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감당했죠. 읽고 쓰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불가능했던 교육이 이제는 많은 양을 인쇄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었지요. 지식이 미디어를 통해 더 확장되고 편만해졌습니다.

**신** 계속 재생산한다는 미디어의 도전은 지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Peter** 지금도 도전적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도전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미디어입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개신교의 전통적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없던 시절과 인쇄로 많은 양의 책을 출판하고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시대의 차이는 큼니다. 도처에 산발되어 있던 권력을 집중할 수 있었고 이 권력은 논리를 바



오늘날 가장 큰 도전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미디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신교는 전통적 소통방식에 머물고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새로운 언어방식이죠. 이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탕으로 하여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죠. 한번 인쇄된 글은 영구적으로 남아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내가 당신의 책에 반박하는 글을 쓸 수 있지만, 그 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미디어가 만들어 낸 근본적인 구조는 다릅니다. 사고와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언어입니다. 디지털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립니다. 같은 글을 다른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커뮤니케이

션의 안정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생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쇄로 집중되었던 권력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분권화됩니다. 아주 새로운 패턴이죠. 누구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받은 교육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달자로, 생산자로 가졌던 권력은 미디어의 전환으로 분산되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서구의 교회들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성장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바뀌었습니다.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구체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미디어에서 찾아 서로가 소통하며 재생산합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신**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기독교는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 기독교의 미디어는 어떻게 변모해야 할까요?

**Peter** 전 디지털 문화가 다시 구술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구술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소통방법을 체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종교적·역사적 이야기, 신화로만 보려는 데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하고, 가르치고, 초대하고 회중을 참여시켜 열린 결말로 이끌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이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소통이며 기독교의 의미에 대한 탐구이자 교리를 전달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신** 디지털미디어는 예배의 형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예배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eter** 미디어에 대한 제 시각 역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매번 새롭게

다. 우리의 신학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눈앞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화에 그저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자문해 봅니다. 그래서 제한하고 억제하면서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뿐이지요. 우리의 기준과 믿음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 곧 사회의 소외된 자, 약한 자, 고통 받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 대부분 종교와 미디어란 주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정치·경제적인 관점으로 연결시켜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연구가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